

- **주요 뉴스:** 12월 FOMC, 내년 3회 금리인상 가능성. 자산매입은 내년 3월 종료 예상
 -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사회보장 지출 법안(1.75조달러 규모) 연내 합의를 기대
 - 미국 11월 소매매출, 전월비 증가율은 부진. 인플레이션과 조기 연말쇼핑 등이 원인
 - 중국 11월 주요 경제지표, 산업생산은 양호한 반면 소매매출은 증가세 둔화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FOMC 결과가 시장 예상과 다르지 않아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6%], 달러화 약세[-0.2%],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경제성장 지속 전망 등이 매수 증가로 연결
유로 Stoxx600지수는 기술주와 의료보건주의 강세 등으로 0.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약화 등으로 하락 마감
유로화가치는 0.3% 상승, 엔화는 0.3% 절하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테이퍼링 가속화와 금리인상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과 유사한 이유 등으로 1bp 상승

※ 원/달러 1M NDF환율(1184.7원, -0.0원) 포함, 한국 CDS 포함

		12/15일	12/14일	전일대비			12/15일	12/1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4,709.9	4,634.1	1.63%	국채 금리 10y	미국	1.46%	1.44%	2bp
	유럽	470.76	469.56	0.26%		독일	-0.36%	-0.37%	1bp
	중국	3,647.6	3,661.5	-0.38%	CDS 5y	한국	21bp	21bp	0bp
	일본	28,460	28,433	0.10%		중국	44bp	44bp	0bp
	한국	2,989.4	2,988.0	0.05%	위험 지표	EMBI+	-	388	-
환율	달러지수	96.35	96.57	-0.23%		VIX	19.29	21.89	-11.88%
	유로화	1.1289	1.1259	0.27%		WTI유	70.87	70.73	0.20%
	엔화	114.04	113.70	-0.30%	원자재	구리	424.6	425.4	-0.19%
	위안화	6.3675	6.3672	0.00%		금	1,776.9	1,770.9	0.34%
	원화	1,185.2	1,182.6	-0.2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12월 FOMC, 내년 3회 금리인상 가능성. 자산매입은 내년 3월 종료 예상

-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3회 금리인상 신호를 발신. 2023,24년에도 각각 3회와 2회 가능하다고 예고. 자산매입 축소 규모는 매월 300억달러씩 늘어나 1월에는 600억달러가 되며, 이러한 방안이 유지되면 내년 3월에 자산매입이 종료
- 이와 같은 급격한 긴축강화 결정은 인플레이션 리스크 증가와 노동시장 개선 등이 배경. 연준 파월 의장은 경제 개선 및 전망 변화가 이번 결정을 정당화하며, 경제가 완전고용을 향해 전진하고 있기에 추가적인 정책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첨언
-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5.9%→5.5%)했지만, 2022년에도 4.0%의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근원 인플레이션은 올해 4.4%까지 상승한 이후, 내년 하락(2.7%)을 관측. 올해와 내년 실업률은 각각 4.3%, 3.5%로 전망
- LPL Financial의 Ryan Detrick은 이번 결과가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 FlowBank의 Esty Dwek는 연준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플레이션 촉진 요인으로 인식할 뿐, 이로 인한 성장 둔화를 우려하지는 않고 있다고 분석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사회보장 지출 법안(1.75조달러 규모) 연내 합의를 기대

- 백악관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성탄절 이전 해당 법안의 합의를 낙관한다고 언급. 민주당의 일부 온건파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들도 결국 미국 국민에게 이익을 가져오기 원한다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부연

■ 미국 11월 소매매출, 전월비 증가율은 부진. 인플레이션과 조기 연말쇼핑 등이 원인

- 상무부에 따르면, 같은 달 소매매출은 전월비 0.3% 늘어 10월(1.8%) 및 예상치(0.8%) 하회. 예년보다 빨랐던 연말쇼핑과 인플레이션 등이 배경. 또한 소비가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커진 것도 원인으로 거론
- FWD BOND'S의 Christopher Rubkey는 소비가 여전히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 JP모건의 Daniel Silver는 10월의 소매매출 호조를 고려한다면, 4/4분기 소비자지출은 전반적으로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

■ 블랙록, 2022년 세계 증시는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채권금리는 상승할 전망

- 나이젤 볼튼 수석 투자책임자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어 채권금리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개별 주식마다 기대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

■ 중국 11월 주요 경제지표, 산업생산은 양호한 반면 소매매출은 증가세 둔화

- 같은 달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비 3.8% 늘어 전월(3.5%) 및 예상치(3.6%) 상회. 에너지 부문 생산 증가 등에 기인. 반면 소매매출은 전년동월비 3.9% 증가하여 전월(4.9%) 대비 둔화되었고, 이는 코로나 대응을 위한 엄격한 제한조치 등이 원인
- Pinpoint 자산운용의 Zhiwei Zhang는 11월에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고 평가하고, 특히 국내소비 둔화가 지속되었다고 지적.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따른 서비스 활동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

■ 일본은행 총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에 접근할 가능성

- 구로다 총재는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기업물가의 여파가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수 있다고 언급. 또한 경기회복과 임금상승 등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첨언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2/1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84, 11월(83), 예상치(84)
- 미국 11월 수입물가(전년동월비): 11.7%, 10월(10.7%), 예상치(11.5%)
- 미국 10월 기업재고(전월비): 1.2%, 9월(0.8%), 예상치(0.9%)
- 영국 11월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5.1%, 10월(4.2%), 예상치(4.7%)
- 중국 11월 신규주택가격(전월비): -0.3%, 10월(-0.2%), 예상치(-)

■ 주요 경제 이벤트(12/16 현지시각 기준)

- ECB 및 영란은행 통화정책회의, 미국 12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 미국 11월 건축허가건수 및 주택착공건수, 12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 미국 및 유로존 12월 마켓 종합 PMI, 유로존 10월 무역수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유럽 국채금리, 통화긴축 여건에서 과거보다 큰 폭의 상승 예상 - Financial Times

(Bond markets still under threat despite Omicron uncertainty)

-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크지 않다면 내년 주요국은 금리인상에 나설 전망. 그러나 시장에서는 연준의 정책금리 상승폭을 1.6%로 예상하며 연준 예측(2.5%)을 크게 하회. 이는 투자자들이 과거 경험을 토대로 국채금리 상승폭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
- 하지만 과거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 통화당국의 금리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 또한 미국과 유럽은 성장을 강조한 재정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정학적 불안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전보다 작은 편

■ 미국 주택가격, 임대료 부담 등으로 2022년 추가 급등 가능성 - 블룸버그

(A New Year Brings a New Surge in Housing Prices)

- 팬데믹으로 촉발된 주택수요 증가로 과열된 주택시장은 최근 과도한 가격 상승, 공급망 혼란, 백신 접종에 따른 이전 행동 패턴 복귀 등으로 점진적 정상화가 진행. 이에 모기지 신청건수와 NAHB 주택시장지수는 각각 7, 8월 최저치 기록 이후 회복 중
- 하지만, 공실률 하락과 시민들의 도시 복귀로 최근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으며, 정부 부양책과 고용 호조로 가계 소득은 증가. 이에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은 재계약 기간에 주택구매 욕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11월말 모기지 신청건수는 9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택구매 심리도 반등. 이에 더해 최근 주택매물 급감 등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시장은 새로운 활황 국면이 시작될 전망

■ 미국의 對중국 정책, 舊소련 시대와 같은 강경책 대신 실용적 전략이 요구 - WSJ

(China Is a Tougher Foe Than the Soviet Union)

■ 중국 위안화 강세, 과거 일본 경기침체 시 엔고와 유사. 위기 신호가 될 소지 - 블룸버그

(China's Surging Currency Is a False Signal)

■ 중국 경제, 내년 소비부진 극복과 성장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 - WSJ

(China's Economy Needs More Hel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8, E-mail jsjeong@kcif.or.kr